

# 알 가잘리의 행복의 비밀인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길

-기독교적 관점에서 -

박 성 은

## 국문초록

이슬람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알 가잘리의 사상은 변화의 과정을 겪는다. 본 논문에서는 그가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를 고뇌하면서 겪는 과정과 그가 제시하는 지복(至福)의 길인 영생의 길을 살피고, 신학자로서 정통 이슬람을 수호하다가 수피가 되었는데, 이러한 그의 입장 변화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어떤 신관(神觀)에서 비롯되었는지 분석하려고 한다.

## Abstracts

When we observe the thoughts of Al-Ghazali, an Islam philosopher and theologian, we can see that his ideas went through a process of changing. In this article, I aim at examining the following two subjects. First, I will try to investigate his experiences of agonizing over how his own soul could be saved, and then the way of eternal life, which is the highest good he suggests. Second, since he was at first a guardian of the orthodox Islam but later became a Sufi, I will try to analyze how we should understand this change of his belief in the Christian perspective, and from which idea of God did it originate.

## 목차

- I. 서론: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II. 철학으로부터 정통 이슬람의 수호
- III. 행복의 비밀인 영혼구원에 이르는 길
  1. 알 가잘리의 인간 이해
  2. 알 가잘리의 신 이해
  3. 현세와 내세에 대한 이해
- VI. 왜 사랑인가?: 교리를 넘어 신과 하나 됨의 사랑
  1. 궁극적 사랑: 신과 하나 됨의 사랑
- V. 결론: 그는 왜 영혼구원을 위한 수행자가 되었는가?

## I. 서론: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를 만나고 형제, 자매를 만난다. 친구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묻기 시작한다. 나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 밖의 시간에 대한 의문 또한 갖게 된다. 나는 태어나기 이전에 영혼은 존재했을까? 잠재태로 있다가 현실태가 된 것인가? 인간이 죽으면, 정말 소멸하여 한줌의 재로 환원되어 지구에 스며들어 우주의 일부분이 되는가?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완전히 소멸하는가? 영혼이 육체와 분리된다면 그것은 어디에 있게 되는가? 인간의 개별적 영혼이 죽음 이후에도 분리되어 자존할 수 있는가? 영혼은 육체 없이 존재할 수 없기에, 잠자는 형태로 있다가 육체의 부활과 더불어 부활하는 것인가? 영혼이 무활동의 상태로 있다가 육체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는가? 육체가 부활하는 시간까지의 영혼의 존재에 대한 간극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영혼불멸이란 영혼의 종적 보존 또는 인간의 종적 보존을 의미하는가? 내세의 교리는 덕스러운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기술로서 종교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가?<sup>1)</sup> 사후에 영혼의 존재 형태와 구원받는 문제에 대한 철학자, 신학자들의 다양한 해석들을 보면서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가올 내세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며 사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인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현실세계에 마음을 빼앗겨 자신의 내면은 물론 내세에 대해 관심조차 기울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알 가잘리의 영혼 구원에 대한 고뇌와 그의 삶의 행적은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인지, 인간이란 존재의 참된 행복은 무엇인지 숙고하게 한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관념적 차원에서 행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생활 태도, 예배, 습관,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관습, 이 모든 것 하나 하나가 구원으로 향해 가는 밀접한 행위인데, 그가 이 모든 과정을 구원의 여정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구원은 교리의 차원을 넘어 신과의 친밀한 하나 됨의 체험적 사랑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알 가잘리는 이슬람 철학자이자 신학자요, 법학자로서 수피가 되어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뇌했다. 특히 그는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철학자들의 입장을 반박하면서 정통 이슬람을 수호했다. 그의 사상의 변천과정에서 보이는 영혼 구원에 대한 고뇌를 통해 필자는 알 가잘리가 이슬람의 단일 유일신 개념 안에서 어떻게 영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고 서술해 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철학으로부터 정통 이슬람의 수호

진리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자신이 깨달은 사실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학문적 회심도 가능하고, 종교적 회심도 가능한 것이다. 진리를 추구하고 탐구하고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언제나 변화와 회심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인간이 행복을 얻게 되는 비밀과 더불어 인간의 영혼이 진정으로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 처절하게 고민하며 진리를 탐구한 알 가잘리의 사상의 변천과정을 보면서 더욱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게 된다.

1) 재경, 아베로에스의 내세의 문제 -종교와 철학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동철학, 제61집, 2012. 63.

알 가잘리는 초기에 이슬람 철학자 가운데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알 파라비, 아비센나의 사상으로부터 정통 이슬람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힘썼다. 그는 대표적 저서인 『철학자들의 부조리』에서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신 개념의 모순점<sup>2)</sup>을 지적하기를, 사후에도 육체가 부활하여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꾸란의 구절<sup>3)</sup>을 들어 육체의 부활을 부정한 철학자들의 견해를 반박한다.<sup>4)</sup> 가령, 인간의 신체가 마지막 날에 조합되지 않으며, 단지 육체 없는 영들만이 보상과 처벌을 받게 되며, 보상과 처벌은 물질적이지 않고 영적이라는 철학자의 주장은 무슬림에 완전히 반(反)한다고 주장한다.<sup>5)</sup>

“중요한 교리의 원칙과 관련하여, 확실한 증거 없이 함부로 꾸란의 문자적 표현을 변경하는 자와 육체적인 부활과 내세에서의 처벌 등을 부정하는 자는 불신자 판결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영혼이 육체로 귀환할 수 없음을 증명할 증거는 결코 없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철학자들은 종교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불신자 판결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sup>6)</sup>

여기서 알 가잘리가 반박하는 철학자란 아비센나를 의미한다. 아비센나는 육체적 부활을 부정했고 대신 부활은 영적 차원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러한 알 가잘리의 입장에 대해 아베로에스는 그의 저서 『모순의 모순』을 통해 반박하기를, 아비센나가 육체의 부활은 부정했지만 영혼의 부활은 인정했기 때문에 부활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아베로에스는 알 가잘리가 부활에 대한 꾸란의 표현 자체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며, 그의 불신자 선언은 꾸란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sup>7)</sup> 그의 관점에서 꾸란은 대중의 계몽을 위해 부활을 육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부활의 원리 그 자체를 언급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육체의 부활인가 혹은 영적인 부활인가 아니면 영혼과 육체의 부활인가 등과 같은 것들은 단지 부활의 묘사에 대한 의견 차이일 뿐이다. 그 가운데 어느 것도 부활의 원리 그 자체는 부정하고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부활의 원리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입장을 가진다 해도 그것 때문에 불신자라고 선언할 수 없다고 아베로에스는 주장한다.<sup>8)</sup>

아베로에스는 알 가잘리를 비판하기를, 설령 부활의 문제에 오류가 있더라도 그는 용서를 받고 보상을 얻는다. 왜냐하면 부활의 존재 자체를 믿는 이상 문제될 게 없기 때문이다. 즉 어떤 해석을 하든 그 해석은 부활의 묘사에 관한 것이니 부활의 존재 여부에 대한 것은 아니다. 부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 이상 불신자 선언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불신자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율법(샤리아)의 원칙이기 때문이다.(Ibn Rushd, 1991:48).<sup>9)</sup>

2) Al-Ghazali, *The Incoherence of the Philosophers*, trans. by Michael E. Marmura, Brigham Young University Press, Provo, Utah, 1997. 10-11.

3) 32:17, 아무도 모를 것은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니 그들을 기쁘게 할 숨겨진 것이다.

4) Al-Ghazali, *The Incoherence of the Philosophers*, trans. by Michael E. Marmura, Brigham Young University Press, Provo, Utah, 1997. 212.

5) Al-Ghazali, *The Incoherence of the Philosophers*, trans. by Michael E. Marmura, Brigham Young University Press, Provo, Utah, 1997. 212. 이 재경, 아베로에스의 내세의 문제 -종교와 철학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동철학, 제61집, 2012. 66.

6) 김정명, 이븐 루쉬드의 해석학과 알 가잘리 비판,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12-1집, 2005, 127.

7) *Ibid.*, 128.

8) *Ibid.* 127.

9) Ibn Rusud, *Fasl al-Maqal*, Bairut :Dar al Mashriq., 48. 김정명, 이븐 루쉬드의 해석학과 알 가잘리 비판,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12-1집, 2005, 127에서 재인용.

꾸란은 죽음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신에게로 돌아간 개인의 영혼이 부활할 때 되돌아온다고 가르친다.<sup>10)</sup> 그리고 죽음과 부활 사이의 기간 동안 신에게 돌아간 영혼을 종종 잠든 상태로 표현하곤 한다. 이 잠든 상태에 대한 무슬림 사상가들의 입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난다.<sup>11)</sup> 특히 꾸란은 신체와의 관계가 단절될 경우 신의 의지에 따른 보존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제대로 존재할 수조차 없는, 그래서 신체에 철저하게 의존적인 영혼관을 제시하고 있다.<sup>12)</sup> 알 가잘리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개인의 영혼은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육체의 부활을 믿고 있다.

인간의 영혼이 본질적으로 육신과 별개로 존재하는데도,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인간의 몸이 땅으로 떨어진 뒤 이전의 육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가정하는 데에서 나온다. 일부 신학자들은 인간의 영혼이 죽음 이후에 소멸된 다음에 다시 회복된다고 가정했으나, 이것은 이성에도, 꾸란에도 모두 반대된다. 이성은 죽음조차 한 인간의 본질적인 개별성을 파괴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sup>13)</sup>

기독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죽음 이후에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부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영생의 완성에는 두 단계가 있다. 그 하나는 육체로부터 해방된 의인들의 영혼들이 즉시 하늘로 올려지는 것이다. 또 하나는 우리의 육체가 부활될 때에 이르게 되는 더 크고 영광된 단계인데, 이 때에는 완전히 구속함을 받고 영광을 입은 상태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보게 될 것이다.<sup>14)</sup>

철학사상으로부터 이슬람 신앙을 수호하고자 했던 신학자이자 법학자로서 그리고 무슬림으로서 왜 알 가잘리는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뇌하면서 회심의 길을 걸었으며, 신을 향한 추구의 길을 걸어가야 했을까? 그는 철학사상, 혹은 이슬람의 교리적 신앙만을 가지고서는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그가 심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회심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알 가잘리가 자신의 영혼 구원에 대한 고뇌를 통해 보여주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무엇이며, 그것이 이슬람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또 그의 신을 향한 구원의 길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영혼 구원에 대한 고뇌

10) 꾸란, 「집단의 장」, 39:42. 죽음에 이른 인간의 영혼을 앗아가며 수면의 상태로 하여 생명을 앗아가는 분은 하나님이니라. 기한이 된 영혼을 앗아가며 기한에 이르니 아니한 영혼을 잠시 유예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니라. 실로 이 안에는 숙고하는 백성들을 위한 교훈이 있노라.

11) Mohammed, Ovey. N., "Averroes, Aristotle, and the Qur'an on Immortality", in *International Philosophical quarterly* 33, no. 1, 1993, pp.44-45. 정현석, 『꾸란』의 내세관을 통해 본 사후 영혼의 존립 가능성- 아베로에스는 사후 영혼의 존립가능성을 부인했는가?, 대동철학, 제61집 2012.12, 87.

12) 정현석, 『꾸란』의 내세관을 통해 본 사후 영혼의 존립 가능성- 아베로에스는 사후 영혼의 존립가능성을 부인했는가?, 대동철학, 제61집 2012.12, 87.

13) *Ibid.*, 66.

14)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 원광연 역,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527.

알 가잘리는 『철학자들의 부조리』를 비롯하여 비슷한 시기에 몇 권의 책을 저술했다. 그의 외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의 병이 있었고, 무덤에서 지옥 불의 위험에 처해있다고 느꼈다. 그는 1095년 7월에 내적 갈등으로 육체적인 병이 생긴다. 그는 언어 장애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었다.<sup>15)</sup> 그는 몇 개월간의 큰 내적인 고통 후에 1095년 11월 바그다드를 떠난다. 표면상으로는 메카를 순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법학자, 신학자, 교수로서 사임하고 가난한 수피가 되어 더욱더 하느님을 완전하게 섬기고자하는 그의 확고한 마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회심의 실재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아무도 전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겠지만, 그의 큰 변화에 대해 몇 가지 구체적인 이유가 제기되었다. 새로운 통치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점과 좀 더 깊은 이유는 지나치게 세속적인 올라마들에 대한 혐오감 때문이었다.<sup>16)</sup>

“아침에는 영생에 대한 갈망으로 몸부림쳤으나, 저녁이면 세속적 욕망이 되살아나 그 갈망을 여지없이 짓밟아버렸다. 내 마음에 두 마음이 갈등하고 있었다. 이슬람력 488년 7월(서기 1095년 7월)부터 6개월 정도 나는 세속적인 욕망이 가져다주는 매력과 영생에 대한 갈망 사이에서 갈등했다. 하느님이 혀를 말라붙게 하여서 강의를 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강의에 나섰으나, 말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고,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다.”<sup>17)</sup> “언어 장애로 상심했으며, 음식과 물을 먹고 마실 힘조차 없어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못했다.”<sup>18)</sup>

알 가잘리는 사직하려고 수없이 시도했지만,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없었고 결국 신께서 그 길로 인도했음을 고백한다. 알 가잘리는 1095년 바그다드를 떠나 10년 동안 수피들처럼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이집트, 다마스쿠스, 예루살렘, 헤브론, 메카, 메디나 등을 순례하면서 영적 수행에 전념했다. 그 결과 단일 유일신 개념에 나타나는 수행자 개념을 그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필자의 관점에서는 신의 전적 은혜라는 중보적 개념이 약한 이슬람의 단일 유일신 개념에서는 알 가잘리도 그랬던 것처럼 인간이 구원 받기 위해서는 신에게 이르기 위해 상승하는 영적인 수행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알 가잘리는 구도자로서 순례하던 중, 경험하고 깨달았던 진리를 그의 작품 『종교학의 부활, Ihya' 'Ulum Al-Din』을 통해 발표했다. 그의 입장에서 올라마 같은 학자들이 해박한 지식을 얻게 된 것은 사회적 출세를 위해 노력한 결과인데, 그와 같은 종교적 지식으로는 내세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확신에서 이 책을 저술했다고 고백한다. 그는 『종교학의 부활』에서 샤리아의 규범을 서술하는 한편, 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을 제시함으로써 종국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길에 대해 설명한다. 즉, 『종교학의 부활』은 구원을 위한 안내서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이슬람 법학, 신학, 수피즘 등 이슬람의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다루고 있다.

『종교학의 부활』의 제1부는 종교적 헌신과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제1부 3권부터 7권에서 청정, 기도, 희사, 금식, 순례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제2부는 사회의 관습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먹고 마시기, 결혼, 연기, 합법적인 일과 비합법적인 일, 교우관계, 성격, 고독, 여행, 듣기(음악, 시)와 황홀, 충고, 삶과 예언자의 지위에 대해서 상술하고 있

15) W. Montgomery Watt, *Islamic Philosophy and Theology*,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64, 115.

16) *Ibid.*

17) M. 라피두스, 『이슬람의 세계사 I』, 신연성 옮김, 서울: 이산, 293.

18) *Ibid.*, 294.

다. 특히, 22장에서는 영혼을 훈련하는 것, 성격을 개선하는 것,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sup>19)</sup>

관습을 영혼 구원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그의 관점에서 관습을 중시하는 올라마(이슬람법학자)의 입장을 볼 수 있다. 윤리적 정화는 예배와 종교적 관습의 깊은 이해에서 이루어진다.<sup>20)</sup> 종교적 관습은 신의 계명과 도덕의 명령에서 유래한 것으로서,<sup>21)</sup> 의례적인 행위와 사회적인 행위이다. 두 가지 행위는 영혼을 깨끗이 하고, 원 상태의 영혼에 내재하는 기억을 일깨우기 위해 신이 계시한 방식이다.<sup>22)</sup> 샤리아(율법)를 준수하는 것도 신에 대한 사랑의 한 측면이다. 사람들이 신의 외적인 계명에 의하여 신에게 나아갈 수 있지만 지복(至福)에 이르는 충분한 길은 아니다.

제3부는 죽을 죄에 대해서, 제4부는 구원의 길에 대해 각각 다루고 있다. 제3부와 4부에서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길과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데, 3부에서는 신자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로서 주로 윤리적인 면을 강조했다. 그는 마음의 성격, 자기 훈련, 과식과 호색, 혐의 악, 화냄, 세속적 재화, 부와 탐욕, 고위직과 위선, 오만, 자만심 등의 잘못을 지적하고 신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sup>23)</sup> 제4부는 회개, 인내와 감사, 공포와 희망, 자기 부인, 유일신 사상과 신에 의탁, 사랑, 동경, 권고 및 만족, 의도, 진실 및 성실, 관조와 자기 검사, 숙고, 주검의 회상 등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과 영혼의 신비적 상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종교학의 부활』에서 그는 1부와 2부에서는 인간의 외부적 문제를 3부와 4부에서는 내부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sup>24)</sup>

그는 1105년 또는 1106년 초기에 니잠 알 물크의 아들이며 재상인 파흐르 알 물크가 니샤푸르에 있는 니자미야 학원의 교수직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자, 1106년 7-8월경에 이를 수락하고 교수직에 취임했다. 그는 니샤푸르에 가서 최소한 3년을 지낸 것으로 추정된다.<sup>25)</sup> 알가잘리는 영적인 순례를 마치고 바그다드 대학에 다시 복귀하였을 때, 그는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삶의 태도와 목적이 매우 변화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교수하는 일로 돌아가더라도 사실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예전의 나는 세속적인 성공을 가져다주는 지식을 전파했으며,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자 의도였다. 그러나 이제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속적인 성공을 포기하게 하고, 세속적인 성공이 참된 가치 앞에서 얼마나 저급한 것인가를 깨우치려 한다.<sup>26)</sup>

---

19) Al-Ghazali, *Ihya' 'ulum al-din* (Book XXII of *The Revival of The Religious Sciences*), On Disciplining The Soul (*Kitab Riyadat al-nafs*) & *The Two Desires* (*Kitab Kasr al-shahwatayn*)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by T. J. Winter., The Islamic Texts Society Cambridge, 1995.3.

20) Maha Elkaisy-Friemuth, *God and Humans in Islamic Thought*, 150.

21) Mohamad Ahmed Sherif, *Ghazali's Theory of Virtue* (New York: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75), 95. , *Ibid.*, 147에서 재인용

22) 아이라 M. 라피두스, 『이슬람의 세계사 I』, 신연성 옮김, 서울: 이산, 297.

23) 정무삼, *Ibid.*, 175.

24) *Ibid.*, 136.

25) Al-Ghazali, *Al-Munqidh min al Dalal*, trans, W. Montgomery Watt, *The Faith and Practice of Al-Ghazali*, 147.

26) W. M. Watt, *The Faith and Practice of al-Ghazali*. London: Allen & Unwin, 1953, pp.21-56. 아이라 M. 라피두스, 『이슬람의 세계사 I』, 신연성 옮김, 서울: 이산, 294에서 재인용.

알 가잘리는 『종교학의 부활』의 요약판인 『행복의 연금술』<sup>27)</sup>에서 인간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다.<sup>28)</sup> 그는 『행복의 연금술』에서 최상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신에게로 관심을 전환해야 한다고 하면서, 인간 자신에 대한 인식이 신을 인식하는 출발점이며, 자신을 아는 사람이 신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저서는 『종교학의 부활』이라는 페르시아어 핵심 요약본으로서 행복의 비밀인 영혼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최상의 행복인 영혼 구원에 이르는 길인가? 진리를 제시하고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과연 무엇이 최고의 선이며,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입장은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하다.<sup>29)</sup> 철학자 아베로에스는 자신의 지성과 순수한 능동지성이 일치하면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였으며,<sup>30)</sup> 에피쿠로스학파는 감각적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보았고, 스토아학파는 인간 정서의 적절한 통제와 중용에서와 덕의 습관에서 최고선을 찾았으며, 아리스토텔레스학파는 덕의 실천에서 찾았다. 그런가 하면 보통 사람들은 명예와 부귀나 쾌락에서 최고선을 찾는다. 유대인들이나 이슬람교도들은 자기들의 공로에서 찾는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며,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데서 찾는다.<sup>31)</sup> 그렇다면 알 가잘리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는가? 알 가잘리가 말하고 있는 행복의 비밀인 영혼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 좀 더 연구해 보고자 한다.

#### IV. 행복의 비밀인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길

##### 1. 알 가잘리의 인간이해

인간 자신이 창조주 앞에서 얼마나 한계적 존재인지 인식함으로써 신에게 이를 수 있다는 알 가잘리의 인간 이해는 인간이 율법준수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정통 이슬람 입장을 비껴가고 있다. 그는 인간이 창조주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는 것이 신에게 이르는 구원 여정의 출발점으로 제시한다. 알 가잘리에 따르면, 인간은 선함과 악함이 공존하며, 천사적인 자질과 악마적인 자질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영혼은 신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향해 추구하고 나아가 때 신에게 이를 수 있게 된다.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인간에 대한 그의 이해는 기독교 인간이해와 상당히 유사하며, 인간이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정통 이슬람의 구원론과는 다른 관점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에 따르면,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는 물음에, 첫째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요, 둘째로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이요, 셋째는 그 구원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입니다.”<sup>32)</sup>라고 답하고 있다. 피조 된 인간의 한계성을

27) 된 책은 제 40책 『Kitab al-Arbain』이며 페르시아어로 된 책은 『행복의 연금술 Kimiya al-Sa'adah』이다.

28) 알 가잘리, 안소근 역, 『행복의 연금술』, (서울: 누멘, 2009), 7.

29)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66.

30) 클라우스 리젠후버, 이용주 역, 『중세사상사』, 209.

31)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62-63.

출발점으로 신에 이를 수 있다는 알 가잘리의 인간 이해는 자신의 비참함을 인식할 때 비로소 구원받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감사할 수 있다는 기독교 인간이해와 상당히 유사하다. 알 가잘리는 인간이란 신의 도움 없이는 존재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것을 『행복의 연금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누구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음을 알게 된다. 인간은 자신이 완전에 도달하더라도 그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며, 머리털 하나도 만들어 낼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된다.<sup>32)</sup>

알 가잘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간의 두 본성, 즉 동물적인 본성과 천사적인 본성을 대비시켜 소개하고 있다. 인간은 두 본성을 깨닫기 전에는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네가 지니고 있는 속성들 가운데 일부는 동물의 것이고, 일부는 악마의 것이고, 일부는 천사의 것이다.<sup>34)</sup> 동물의 관심사는 먹는 것, 자는 것, 싸우는 것이다. 악마는 기만, 거짓, 속임수를 일으키느라 분주하다. 천사들은 신의 아름다움을 관상(저자주 : 신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사랑하는 행위)하고, 동물적인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sup>35)</sup> 그는 인간이란 존재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존재로 보고 있다. 자기 인식의 첫 단계는 자신이 육체라고 불리는 외적 형태와 마음 또는 영혼이라 불리는 내적 실재로 구성되어 있음을 아는 것이다.<sup>36)</sup> 인간은 자신의 존재 안에 축소된 형태로 창조주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반영되었다.<sup>37)</sup> 신의 창조를 통해 인간은 신의 존재를 알게 되고, 육체의 신비를 통해서 신의 능력과 지혜를 알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은 신에 대한 인식의 열쇠가 된다고 한다.<sup>38)</sup>

알 가잘리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신을 인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 인간의 육체는 소멸하나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며, 인간의 육체는 비천하고 세속적이지만, 그의 영혼은 고귀하고 신적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절제의 도가니에서 육적인 열정이 정화되고 나면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되며, 더 이상 걱정과 갈망의 노예가 아니라 천사적인 자질을 지니게 된다. 그 상태에 이르면 인간은 영원한 아름다움을 관상(觀想)하며, 자신의 천국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은 광석이 금으로 변하는 것처럼 쉽지 않다는데 그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sup>39)</sup>

## 2. 알 가잘리의 신 이해

알 가잘리의 신에 대한 인식은 시기의 작품에 따라 다르다. 『철학자들의 부조리』에서는 아샤리 학파의 전통을 따라 신은 전능하고 전지한 창조자이며 의지적인 존재로서 영원한 자로 표현된다. 그는 정통 이슬람의 입장에서 이러한 신의 개념과 상충하는 철학자에 대해서 반격

32) *Ibid.*, 66.

33) 『행복의 연금술』, 39.

34) *Ibid.*, 24.

35) *Ibid.*, 24~25.

36) *Ibid.*, 25.

37) *Ibid.*, 39.

38) *Ibid.*, 40.

39) *Ibid.*, 21.



하며 정통 이슬람을 수호했다. 그러나 그의 후기의 작품인 『행복의 연금술』에서는 신을 철학적이고 신비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는 신이 인간 영혼의 본질적 속성과 유사하기 때문에 신을 닮은 인간의 영혼이 그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영혼이어야만 한다. 즉, fitra의 상태, 인간의 영혼이 본래처럼 순수한 상태가 되어야만 신을 인식할 수 있다. 인간의 영혼이 물질세계에 존재하지만 영혼은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다. 영혼은 육체가 지식과 경험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영원성 안에서 창조되었다.<sup>40)</sup>

그러므로 알 가잘리는 신을 닮은 인간 영혼의 본질과 속성을 앎으로써 신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sup>41)</sup> 인간 영혼의 실재와 그 속성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신을 알기 위한 열쇠가 되며,<sup>42)</sup> 신과 영혼은 나누어질 수 없으며, 공간과 시간의 제한도 받지 않고, 양과 질이라는 범주를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또한 형태, 색채, 크기 등의 개념도 이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sup>43)</sup> 인간 영혼의 최고의 기능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며, 인간은 육체가 죽는다 해도 영혼은 죽지 않으며, 영혼이 소유하고 있는 신에 대한 인식 또한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영혼이기 때문이다.<sup>44)</sup>

영혼의 본질과 속성이 무엇인지 앎으로써 신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알 가잘리의 영혼 개념의 큰 특징이다. 이러한 그의 관점은 기독교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해와 상당히 유사한 점을 지니고 있다. 알 가잘리는 『행복의 연금술』에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꾸란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신을 닮은 인간의 영혼을 관조함으로써 알 수 있다고 한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 있을 때 신을 알고 그를 사랑하는 것은 내세에 가서도 신을 직관할 수 있는 기초가 되며, 신을 사랑한 신심(信心)은 내세에서도 신과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와 속성들을 관조함으로써 신에 대한 인식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을 관조하는 많은 이들이 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를 행하는 데에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 신 인식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간 영혼을 인식함으로써 신을 아는 방법과 또한 가지는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보통의 지성인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sup>45)</sup> 궁극적인 실재인 신과 영혼을 개념화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감각 개념들이 적용될 수 없는 영역에 들어와 있다.<sup>46)</sup>

알 가잘리는 인간 영혼에 대해 신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면서 영혼을 신과의 유비적 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신을 닮은 존재인지 설명하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영혼이 무엇인지 인식함으로써 신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이다.<sup>47)</sup> 왕 이외에 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신은 우리를 작은 왕으로 만들었다. 인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좌는 영혼이며, 수장 천사는 마음으로 표현되며, 의자는 머리이며, 생각의 보고는 서판이다. 영혼은 제약을 받지 않으며, 나누어질 수 없으며,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것처럼 영혼은 육체를

40) Maha Elkaisy-Friemuth, *God and Humans in Islamic Thought*, 135.

41) 가잘리, 안소근 역, 『행복의 연금술』, *Ibid.*, 41-42.

42) *Ibid.*, 25.

43) *Ibid.*, 40-41.

44) *Ibid.*, 25-37.

45) *Ibid.*, 38.

46) *Ibid.*, 41.

47) Maha Elkaisy-Friemuth, *God and Humans in Islamic Thought*, 135.

다스린다. 우리에게는 작은 왕국이 위임되었다.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책임을 묻게 된다.<sup>48)</sup> 신은 지식의 최고 대상이며, 그를 아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즐거움을 준다. 신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마치 낙원에 있는 것과 같다.<sup>49)</sup> 지상에서 획득한 신 지식은 내세에서 신에 대한 직관으로 승화될 것인데, 이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면 직관에 이르지 못한다.<sup>50)</sup>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신을 직관하는 인간의 조건은 여명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sup>51)</sup>

### 3. 현세와 내세에 대한 이해

알 가잘리는 영혼구원을 위해서는 현세가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떤지 알아야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내세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순례자들이 다음 세상으로 가는 도상이며, 지나가는 장터에 불과하다. 인간은 감각을 지니고 있는 동안 현세에 있는 것이며, 감각이 사라지면 인간의 본질적 속성만이 남게 되어, 인간은 내세로 떠났다고 말한다.<sup>52)</sup> 인간은 현세에 있는 동안 그의 영혼을 보호하고 양육하며, 육체를 돌보고 양육해야 하는데, 영혼을 위한 양식은 신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며, 신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은 영혼을 망하게 하는 길이다. 육체는 영혼이 타고 다니는 동물과 같은 것으로, 영혼은 영속하지만 육체는 소멸된다. 영혼이 육체를 돌보아야 하는 것은 마치, 순례자가 메카를 가는 길에서 낙타를 돌보아야 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순례자가 낙타를 먹이고 장식하는 데에 시간을 다 소모한다면, 결국 그는 사막에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과 같다.<sup>53)</sup>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영원한 과거와 또한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게 될 영원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 본 사람은 세상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여행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sup>54)</sup> 마음을 부풀게 하고 마음을 세상에 집착케 하여 내세를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들은 모두 악한 것들이다.<sup>55)</sup>

알 가잘리는 내세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신을 인식하고, 영적 실제 세계를 믿고, 신을 경배하는 것은 영혼의 치료약과 같은 반면, 신에 대한 무지와 죄는 영혼에게 치명적인 독이 된다고 한다. 영혼의 속성들, 곧 신에 대한 사랑과 인식은 영혼과 함께 존속하는데, 영혼은 미래에도 존속하며, 인간의 영혼은 본질적으로 육신과 별개로 존재한다.<sup>56)</sup> 깨달음에 이른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세계를 향한 열린 창문이 있어서, 전통적인 믿음이 아닌 실제적인 체험을 통하여 무엇이 인간의 영혼 안에 행복 혹은 불행을 만드는가를 알게 된다.<sup>57)</sup> 인간의 지체들은

---

48) *Ibid.*, 136.

49) 『행복의 연금술』, 129.

50) *Ibid.*, 130.

51) *Ibid.*, 150-151.

52) *Ibid.*, 53.

53) *Ibid.*, 53-54.

54) *Ibid.*, 57-58.

55) *Ibid.*, 61.

56) *Ibid.*, 62-66.

57) *Ibid.*, 62.

하나하나 마비되어 가고 움직이지 않게 되지만, 영혼의 개별성은 마비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육신은 아이였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지만, 현재의 인격성은 그때의 인격성과 동일하기 때문에 육신이 완전히 사라져버릴 지라도 영혼이 존속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육신과 별개인 속성들, 곧 신에 대한 사랑과 인식도 영혼과 함께 존속하게 된다.<sup>58)</sup>

한편, 영혼들이 죽음 이후 겪는 고통들은 현세에 대한 지나친 사랑에서 기인한다.<sup>59)</sup> 내세에 의심을 품고 있더라도, 죽음 이후의 심판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생각한다면 이성적으로 내세가 있다고 여기고 행동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sup>60)</sup>

또한 알 가잘리는 인간이 사후에 신의 심판을 받는데, 특히 현세를 사랑하는 영혼들은 죽음 이후에 필연적인 고통이 동반된다고 보았다.<sup>61)</sup> 인간은 현세에 대한 집착의 결과 외적인 심판뿐만 아니라 내적인 영원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심판이다.

알 가잘리의 입장을 정리하면, 그는 인간 자신에 대한 인식과 특히 영혼에 대한 인식을 통해 신을 인식할 수 있으며, 현세와 내세를 앞으로써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가 신을 아는 최고의 단계로서 신과의 합일이 어떻게 그에게 있어 구원의 의미가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V. 사랑이 왜 구원인가? : 교리를 넘어 신과 하나 됨의 사랑

알 가잘리는 무엇 때문에 철학자들에 대항하여 정통 이슬람을 수호한 무슬림으로서 내적인 회심을 하고, 신과 친밀한 하나 됨의 사랑을 추구하였을까? 이슬람의 샤리아(율법) 신앙으로 신과의 관계에는 불충분한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인가? 누군가가 30년 동안 주야로 단식하고 기도했는데도 영적인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동안 영적인 체험도, 신도 직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인간의 이기심이 신과 자신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sup>62)</sup> 그러기에 차라리 사랑의 작은 씨앗이 사랑 없는 70년간의 종교생활보다 낫다는 것이다.<sup>63)</sup>

필자의 관점에서 영혼구원을 갈망했던 알 가잘리는 율법적이고 교리적 차원의 신앙을 넘어 신과 친밀하한 사랑을 갈망했고, 성취하였는데 그것이 그에게 구원이었던 것이다. 신과의 하나 됨의 사랑이 구원이라는 그의 관점에서 사랑하는 자에게서 분리하는 가장 큰 고통이다. 사랑하는 자는 생각하고자 하지 않아도 생각하게 된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받는 자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아는 지식이 없이는 그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과의 합일적인 사랑(화나)은 지식으로 아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는 하나가 된다. 그렇다고 본질이 하나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만나는 사랑은 그리워하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sup>64)</sup>

58) *Ibid.*, 64-65.

59) *Ibid.*, 68.

60) *Ibid.*, 77.

61) *Ibid.*, 68.

62) *Ibid.*, 132-133.

63) Shimmel, Annemarie, *Mystical Dimensions of Islam*,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1975. 51.

64) 『행복의 연금술』, 121-140.

그는 지식으로 아는 신과의 관계를 넘어 체험적으로 궁극적인 실재와의 만남을 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추구했던 화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 1. 궁극적 사랑: 신과 하나 됨의 사랑

알 가잘리의 신과의 합일로서 화나의 개념은 『종교학의 부활』과 『빛의 벽감』에 나온다. 『종교학의 부활』에서는 기본적으로 화나에 이르는 방법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면, 『빛의 벽감』은 신에 대한 궁극적 진리를 경험하기 원하는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진 책이다. 화나란 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취하려는 최고의 단계로서 자기는 소멸하여 신과의 합일을 이루는 개념이다. 그는 신과의 합일에 이르는 4단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한다. 첫 번째 단계는 견과류의 겉껍질과 같다. 두 번째의 단계는 속껍질과 같으며, 세 번째의 단계는 속과 같다. 네 번째의 단계는 가장 깊은 속에서 나오는 오일로 설명할 수 있다.<sup>65)</sup> 신과의 합일에서 첫 단계는 마치 위선자들이 유일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세심한 고백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신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단계이며, 두 번째 단계는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믿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단계이며, 셋째 단계는 진리의 빛과 내적인 조명의 빛에 의해 유일신앙(faith in divine unity)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전능자로부터 많은 것들이 유출되었다는 것을 보는 신에게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이 표현하는 단계이며, 마지막 단계는 의로운 자들의 증거로서 유일신앙에 의해 자신은 소멸되고 오직 신만이 존재하는 것을 보는 수피들의 단계이다.<sup>66)</sup>

『종교학의 부활』에서 화나의 개념은 『빛의 벽감』에서 좀 수정되고 있다.<sup>67)</sup> 『종교학의 부활』에서 화나는 신비적인 길의 최고의 단계로서 완전한 사랑이다. 최고의 신비적인 단계는 사랑받는 자(the Beloved)를 보기를 갈망하는 것인데, 이러한 비전은 내세에서만 가능하다.<sup>68)</sup> 그것은 이 세상에서 신을 증거한 사람에게 주어진 보상이다.<sup>69)</sup> 다가올 내세에서 신을 보는 것은 신비주의자들의 소망이며, 그것은 천국의 궁극적 기쁨이다. 『종교학의 부활』 4부에서 알 가잘리는 화나의 개념을 반복하여 “신을 바라봄”이라는 주제로 설명하면서, 신을 바라봄은 천국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다.<sup>70)</sup> 그러나 『빛의 벽감』에서 알 가잘리는 수피 성인들, al-arifin은 현세에서 신의 비전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빛의 벽감』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그의 얼굴의 빛나는 영광으로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수피는 봄(sight)에 의해 모든 것을 인식함으로써 온전히 태우고, 보는 자는 그의 통찰로 모든 것을 전소시킨다.<sup>71)</sup> 오직 이러한 비전을 통해서만 수

65) Al-Ghazali, *Ihya' 'ulum al-din* (Book XXXV of *The Revival of The Religious Sciences*), *Kitab al-tawhid wa'l -tawakkul (Faith in Diveine Unity & Trust in Dinine Providence)*,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by David B. Burrell, C.S.C. Louisville: Fons Vitae, 2001. 11.

66) Al-Ghazali, *Ihya' 'ulum al-din* (Book XXXV of *The Revival of The Religious Sciences*), *Kitab al-tawhid wa'l -tawakkul (Faith in Diveine Unity & Trust in Dinine Providence)*,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by David B. Burrell, C.S.C. Louisville: Fons Vitae, 2001. 10.

67) Maha Elkaisy-Friemuth, *God and Humans in Islamic Thought*, 137.

68) Al-Ghazali, *Ihya*, Vol4(*Kitab al-Mahabba*), 374, 375, 386. Maha Elkaisy-Friemuth, *God and Humans in Islamic Thought*, 137 재인용.

69) Al-Ghazali, *Ihya*, Vol4(*Kitab al-Mahabba*), 374, Maha Elkaisy-Friemuth, *God and Humans in Islamic Thought*, 137에서 재인용.

70) Al-Ghazali, *Ihya*, Vol4(*Kitab Dhikr al-Mawt*), 641, Maha Elkaisy-Friemuth, *God and Humans in Islamic Thought*, 137에서 재인용.

피는 하나님의 실재를 경험한다.<sup>72)</sup>

수피는 신과의 관계에서 이를 수 있는 최고의 단계(따위히드)에서 신(One)외에는 우주에서 어떤 것도 볼 수 없다.<sup>73)</sup> 게다가 신을 보는 것은 빛의 플래쉬(flash of light)처럼 오거나 영속한다.<sup>74)</sup> 이러한 종류의 논의는 이러한 *mu'amala* 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며, 비의적 주제(esoteric subject, *'ulum al -mukashafa*) 가운데서도 비밀스런 인간 행동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따위히드의 상태를 더 이상 드러내서는 안된다.<sup>75)</sup> 이처럼 신이 없이는 어떤 것도, 심지어는 자신조차도 볼 수 없는 수피야말로 진정으로 신과 합일을 이룬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만이 따위히드(Tawhid, 신의 유일성) 속에서 그 자신으로부터 소멸되어 신과의 합일을 이룸으로써 신의 전적인 현존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76)</sup> 『빛의 벽감』 마지막 장에서 신은 오직 진실한 실존이라는 것을 수피가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의 신비적인 경험 안에서 신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77)</sup>

알 가잘리에 따르면, 신과 인간의 영혼은 본질적으로 속성이 유사하지만, 그렇다고 신의 본질과 인간영혼의 본질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알 할라즈와는 달리 알 가잘리는 하나의 본질로서의 합일(union)개념을 부정한다. 왜냐하면 두 개의 실체(two entities)가 동등하지 않는 한,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과 신은 동등한 합일은 불가능하다.<sup>78)</sup> 알 가잘리는 신에 대한 친밀한 지식의 의미라는 글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아는 것처럼 사람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신 이외에 신을 아는 자는 없다고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알 가잘리에게 있어서 신과의 합일이란 수피의 본질과 신의 본질이 완전히 동일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을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sup>79)</sup>

알 가잘리는 철학자답게 자신이 신을 사랑하는지,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지, 구원받은 사랑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랑의 표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한다. 신을 사랑한다면 숨길 수가 없으며, 신에 대한 사랑의 표지가 드러나게 된다. 신을 사랑한다면, 그 진정성을 점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영혼이 참된 구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 첫 번째 시험은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는 신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느냐이다. 세 번째는 마음에 노력이 없이도 신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다. 넷째는 그가 신의 말씀인 꾸란을 사랑하고, 신의 예언자 무함마드를 사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다섯째는 그가 신심을 위하여 물러나 홀로 있기를 갈망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다. 일곱째는 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불신자들과 순종하지

---

71) Maha Elkaisy-Friemuth, *God and Humans in Islamic Thought*, 138.

72) *Ibid.*

73) *Ibid.*

74) Al-Ghazali, *Ihya, Vol4(Kitab Dhikr al-Mawt)*, 299. Maha Elkaisy-Friemuth, *God and Humans in Islamic Thought*, 138.

75) Al-Ghazali, *Ihya, Vol4(Kitab Dhikr al-Mawt)*, 299. Maha Elkaisy-Friemuth, *God and Humans in Islamic Thought*, 138.

76) Annemarie Schmel, *Mystical Dimensions of Islam* (U.S.A: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76), 146.

77) Maha Elkaisy-Friemuth, *God and Humans in Islamic Thought*, 120.

78) *Ibid.*

79) *Ibid.*, 146.

않는 자들을 미워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살펴 볼 수 있다.<sup>80)</sup>

## VI. 결론: 그는 왜 영혼구원을 위한 수행자가 되었는가?

알 가잘리는 정통 이슬람을 수호하기 위해 『철학자들의 부조리』에서 이슬람 신앙과 상충하는 철학자들의 입장을 반박하다가 후에 수피가 되었다. 정통 이슬람의 입장에서는 율법 준수를 통한 구원을 강조한다면, 그의 후기의 사상에서는 신과의 합일이 구원이라고 했다. 필자는 이러한 그의 사상의 변화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슬람의 단일한 유일신 개념에 근거해 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알 가잘리가 초기에 정통 이슬람을 수호하기 위해서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며, 영적인 부활만을 주장하는 철학자의 입장을 반박했다. 그의 영혼에 대한 개념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영혼은 영속적이며, 육체와는 다른 영원성 안에서 기원을 가지며, 인간의 본질적 속성이며<sup>81)</sup>, 개별자의 고유성을 가지며, 육체는 부활한다고 믿었다. 그의 후기 작품에서는 그는 영혼의 본질적 속성은 신을 닮았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인간이 자신을 관상함으로써 신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로 보았다.

정통 이슬람의 입장에서 인간은 신과 본질적 차이를 가진 피조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의 후기 작품에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철학적이고 신비적인 차원으로 접근한다. 영혼의 본질적 속성은 신을 닮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영혼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신을 인식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신과 합일을 이룰 수 있으며, 이것을 구원으로 보았다. 필자의 관점에서 알 가잘리의 구원은 신과의 친밀한 하나 됨의 관계를 현세의 삶에서도 이루고, 나아가 내세의 삶에서도 이루는 것이었다. 그의 신비주의적인 사상이 정통 이슬람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위험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함에 있어서 샤리아의 실천, 삶의 태도, 윤리적 실천, 사회적 관습 등, 구원에 이르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덕목들을 균형 있게 제시하는 사상가였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 결국, 알 가잘리는 이슬람의 단일신 개념 안에서 신의 내재적이고 인격적이며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약했기 때문에 구도자가 되어 신을 향해 상승하는 사랑을 실천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가 11세기의 인물임에도 방법론적인 면에서 인간이 구원을 향한 주체적 존재였다는 점에서 그를 근대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sup>82)</sup> 그러나 필자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 구원을 추구하는 알 가잘리의 구원의 여정은 이슬람의 단일신 개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독교의 구원론과 알 가잘리의 영혼구원 개념을 비교해 볼 때, 알 가잘리에게 있어서 인간은 구원을 위한 주체자라고 한다면, 기독교에서는 신이 구원의 주체가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알 가잘리가 인간 자신의 한계성을 인식하므로 신을 알 수 있다는 입장은 기독교에서 인간

80) 『행복의 연금술』, 136-140.

81) 『행복의 연금술』, 53.

82) *Ibid.*, 142.

이 진정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길로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한 인식에서 구원이 출발한다는 점과 견주어 비교해 볼 수 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에서는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한 출발점이 인간의 비참함을 인식하는데서 부터라고 한다.

인간이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로 나와 나의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요. 둘째로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이요. 셋째로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sup>83)</sup>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 값을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해 내셨으며,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주고 있다. 그 결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영생을 확신하게 한다.<sup>84)</sup>

서론에서 질문했듯이 사후 육체로부터 분리된 영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이러한 측면은 알 가잘리의 영혼 이해와 비슷한 점이 있다. 즉, 영혼은 영속적이라는 점, 개별적 영혼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점,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는 점이다. 영혼이 영속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설명은 불충분하다. 단지, 잠자는 형태로 있는지, 신에게 즉시 올려지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해석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영생의 완성에는 두 단계가 있다. 그 하나는 육체로부터 해방된 의인들의 영혼들이 즉시 하늘로 올려지는 것이다. 또 하나는 우리의 육체가 부활될 때에 이르게 되는 더 크고 영광된 단계인데, 이때에는 완전히 구속함을 받고 영광을 입은 상태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sup>85)</sup>

알 가잘리의 영혼 구원을 향한 여정은 물질적인 가치를 최상의 가치로 추구하는 것이 대세처럼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며,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교훈을 준다. 세속의 유혹이 나를 기만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더 엄밀하게 성찰한다면 자신이 파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영혼의 구원, 내세, 심판은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차원이지만, 내세가 있다고 생각하고 현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성적으로 더 부합하다는 알 가잘리의 말처럼, 현세의 삶도 내세로 가는 길임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개인의 영혼은 물론 공동체에도 유익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알 가잘리의 행복의 비밀인 영혼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늘의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83)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66.

84) *Ibid.*, 61.

85) *Ibid.*, 527.

## 참고문헌

### 한국어문헌

- 아이라 M. 라피두스, 『이슬람의 세계사 I』, 신연성 옮김, 서울: 이산, 2008.
- 알 가잘리, 안소근 역, 『행복의 연금술』, 서울: 누멘, 2009.
-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 원광연 역,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6.
- 클라우스 리젠후버, 이용주 역, 『중세사상사』, 파주: 열린책들, 2007.

### 학술지논문

- 김정명, 이븐 루쉬드의 해석학과 알 가잘리 비판,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12-1집. 2005.
- 이재경, 아베로에스의 내세의 문제 -종교와 철학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동철학, 제61집, 2012.
- 정현석, 『꾸란』의 내세관을 통해 본 사후 영혼의 존립 가능성- 아베로에스는 사후 영혼의 존립가능성을 부인했는가?, 대동철학, 제61집. 2012.

### 학위논문

- 정무삼. “알 가잘리 연구 -알 가잘리의 작품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 대학교 대학원, 1994.

### 외국어문헌

- Al-Ghazali. *Tahafut al-falasifah*, a parallel English Arabic text. translated, introduced, and annotated by Michael E. Marmura-1st ed. *The Incoherence of the Philosophers*. Provo, Utah : Brigham Young University Press, 1997.
- Al-Ghazali. *Ihya' 'ulum al-din* (Book XXII of *The Revival of The Religious Sciences*), On Discipling The Soul (*Kitab Riyadat al-nafs*) & *The Two Desires* (*Kitab Kasr al-shahwatayn*)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by T. J. Winter., The Islamic Texts Society Cambridge, 1995.
- Al-Ghazali. *Ihya' 'ulum al-din* (Book XXXV of *The Revival of The Religious Sciences*), *Kitab al-tawhid wa'l -tawakkul* (*Faith in Diveine Unity & Trust in Dinine*



- Providence*),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by David B. Burrell, C.S.C. Louisville: Fons Vitae, 2001.
- Al-Ghazali. *Deliverence From Error*. translated and annotated by R.J. McCaathy, Louisville: Fons Vitae, 1980.
- Annemarie Schmmel, *Mystical Dimensions of Islam*, U.S.A: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76.
- Elkaisy-Friemuth, Maha. *God and Humans in Islamic though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6.
- Marmura, Michael E., 'Al-Ghazali', Adamson, Peter and Taylor, Richard C. edit, *Arabic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Watt, W. Montgomery. *The Faith And Practice of Al-Ghazali*. Chicago: Kazi publications, 1982.
- Watt, W. Montgomery *Islamic Philosophy and Theology*,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64.
- Whittingham, Martin. *Al-Ghazali and the Quran- One book. many meaning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7.